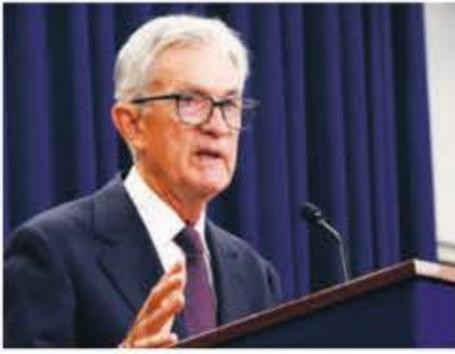


연준 금리 인하, 올해 두 차례 더 시사 노동시장 둔화 우려에 "리스크 관리 차원"



▲ 제롬 파월 연방준비제도(Fed) 의장 사진=로이터

연방준비제도(Fed)가 17일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인하하며 올해 안에 추가 두 차례 인하가 이어질 것임을 시사했다. 노동시장 둔화에 대한 우려가 커진 가운데 나온 결정이다.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는 이날 11대 1의 표결로 연방기금금리를 4.00~4.25% 범위로 낮췄다. 신규 이사 스티븐 미란만이 반대표를 던지며 0.5%포인트 인하를 주장했다. 월가에서는 다수의 반대파 나올 것으로 예상했으나, 결과적으로 이견은 제한적이었다.

성명에서 위원회는 경제 활동이 "완화됐다"고 평가하며 "고용 증가세가 둔화됐다"는 문구를 새로 넣었다. 물가에 대해서는 "다소 높게 유지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는 고용 안정과 물가 안정이라는 연준의 이중 목표가 상충되는 상황을 보여준다.

제롬 파월 의장은 기자회견에서 이번 인하를 "리스크 관리 차원"으로 규정하며 "노동 공급과 수요 모두가 둔화된 것은 이

례적"이라며 고용시장 불확실성을 강조했다. 그는 이번 조치로 통화정책이 "더 중립적인" 위치로 이동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회의에서 공개된 점도표에 따르면 올해 안에 두 차례 추가 인하가 예상된다. 다만 위원들 간 시각차는 컸다. 19명 중 9명은 한 차례 인하를, 10명은 두 차례 인하를 전망했다. 한 명은 이번 인하를 포함해 올해 어떠한 인하도 원치 않았다. 미란의 경우 총 1.25%포인트 추가인하를 원하는 점으로 추정된다.

골드만삭스자산운용의 사이먼 당구어는 "위원회 내 비둘기파가 주도권을 잡았다"며 "인플레이션이 예상보다 크게 오르거나 노동시장이 빠르게 반등하지 않는 한 완화 기조는 이어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연준은 또한 2026년에 한 차례, 2027년에 또 한 차례 인하를 예상하면서 장기 중립금리를 3%로 제시했다. 일부 위원들은 이보다 낮은 장기 금리를 전망했다. 경제 전망은 성장률이 6월 예상보다 소폭 높아졌으나, 실업률과 물가 전망은 그대로였다.

노동시장 상황은 여전히 논란거리다. 8월 실업률은 4.3%로 여전히 역사적으로 낮은 수준이지만, 2021년 10월 이후 최고치였다. 올해 들어 고용 창출은 정체 상태이며, 최근 노동통계국 자료에 따르면 작년 3월까지 1년간 고용 증가가 초기 발표보다 약 100만 개 적었던 것으로 수정됐다.

모기지 재융자 신청 58% 폭증 신규주택 구입용은 3% 증가 그쳐



▲ 모기지 재융자 신청이 급증하고 있다. 사진=shutterstock

모기지 금리가 지난해 10월 이후 최저 수준으로 떨어지면서 재융자 신청이 급증했다. 불확실한 경제 상황 속에서 절약 폭을 늘리려는 이들이 몰리면서 '재융자 붐'이 일어난 것이다.

모기지은행협회(MBA)의 계절 조정 지수에 따르면 모기지 재융자 신청 건수는 전주 대비 58% 급증했으며,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해도 70% 늘었다. 전체 모기지 신청에서 재융자가 차지하는 비중은 전주 48.8%에서 59.8%로 치솟았다.

평균 계약 금리는 대출 한도가 80만 6,500달러 이하인 30년 고정 모기지의 경우 6.49%에서 6.39%로 하락했다. 포인트(대출 취득 수수료 포함)는 0.56에서 0.54로 줄었으며, 이는 20% 다운페이먼트를 기준으로 한다.

MBA 수석 부사장이자 수석 이코노미스트인 마이크 프라탄토니는 "재융자 평균 대출 규모가 조사 35년 역사상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했다"며 "대출 규모가 큰 주택 소유자들이 먼저 뛰어들었다"고 설명했다.

특히 변동금리 모기지(ARM) 재융자 신청이 강세를 보였다. ARM비중은 전체 신청의 12.9%를 차지해 2008년 이후 최고치를 나타냈다. 프라탄토니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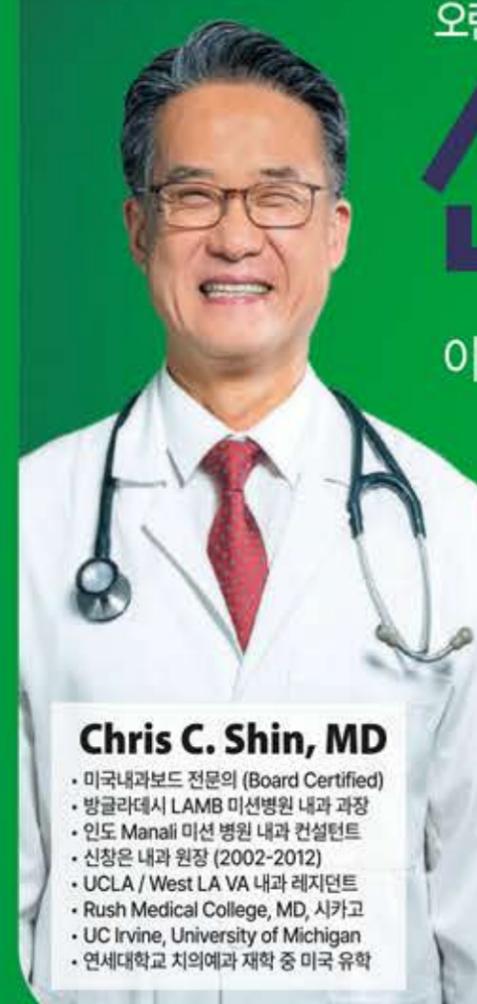
"현재 ARM은 초기 5년, 7년, 10년의 고정금리 기간이 있어 2008년 이전처럼 조기 상환 충격을 일으킬 위험은 없다"며 "ARM 금리는 30년 고정 모기지보다 약 0.75%포인트 낮다"고 덧붙였다.

반면 신규 주택 구입 수요는 상대적으로 차분했다. 주택 구매를 위한 모기지 신청은 전주 대비 3% 늘었으며,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는 20% 증가했다.

모기지 금리는 추가 하락세를 이어갔다. 모기지 뉴스 데일리에 따르면 30년 고정 모기지 평균 금리는 6.13%로 떨어지며 2022년 말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다. 다만 일부에서는 연준이 금리를 인하하면서 지난해처럼 채권 시장 매도세가 발생해 오히려 모기지 금리가 반등할 가능성도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www.faithandhopemedical.org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빌립보서 4: 6 - 7)



Chris C. Shin, MD

- 미국내과보드 전문의 (Board Certified)
- 방글라데시 LAMB 미션병원 내과 과장
- 인도 Manali 미션 병원 내과 컨설턴트
- 신창은 내과 원장 (2002-2012)
- UCLA / West LA VA 내과 레지던트
- Rush Medical College, MD, 시카고
- UC Irvine, University of Michigan
- 연세대학교 치의예과 재학 중 미국 유학

오랜 의료봉사의 경험으로 환자의 마음까지 살피는 의사

신창은 내과

Chris C. Shin, MD

이제 다시 **한인어르신**들을 위해 진료하겠습니다.

30년 의학 경험과 지난 10년간 아시아 오지에서의 의료봉사 경험을 바탕으로 생명을 선물하는 신창은 내과에서 진료 받으세요!

OPEN 진료 시간
8 AM - 4 PM (월요일 ~ 금요일)

진료 예약 **714. 577. 2340**
408 S. Beach Blvd. #204, Anaheim, CA 92804

사랑하는 마음으로 가족처럼

당신을 먼저 생각합니다



SMG 서울 메디칼 그룹
SEOUL MEDICAL GROUP

찾아오시는 길



91 Fwy
평컨 Lincoln
West Anaheim Medical Center
신창은 내과 건물 204호
오렌지 Orange
비치 Beach Blvd